

‘제2 카검 잡아라’... 장외주식 몰려든 개미들

(카카오게임즈)

SK팜·카카오게임즈 등
잇단 IPO 대박 학습 효과
K-OTC 일평균 거래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61% ↑
증권사, 플랫폼 확대나서



지난 2일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위해 고객들이 신청 및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공모주 청약경쟁률이 치솟자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장외주식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데다 잇단 기업공개(IPO) 성공 학습효과로 장외주식 시장도 관심의 대상이 된 것. 실제로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K-OTC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간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74억769만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산이 시작되던 지난 3월(42억4403만원) 대비 76.17%, 전년 동기(28억5964만원) 대비 161.46% 상승한 수치다.

앞서 K-OTC는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제도화한 국내 장외주식 시장이다. 비교적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통상 기업의 상장 전일까지 장외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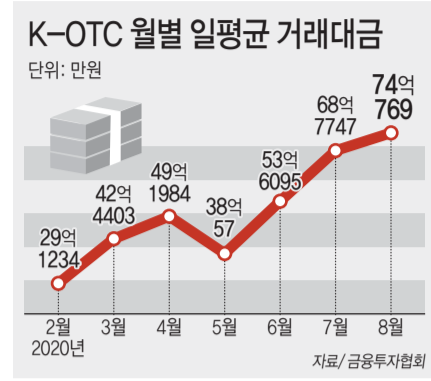
◆ IPO株 미리 투자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시중에 넘치는 유동 자금이 주식 시장을 향해 몰리고 있다. 특히 공모주의 경우 장외주식 시장을 통해 IPO를 앞둔 기업의 주식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

비교적 적은 자금을 가진 개인투자자가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이른바 대박 IPO주 일반 청약에 참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높은 경쟁률 탓에 1억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납입해도 SK바이오팜 13주, 카카오게임즈 5주를 배정받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의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7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공모가인 2만4000원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가격이지만 수 천 만원의 증거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카카오뱅크는 10만7000원, 크레프톤은 121만5000원에 주가가 형성돼 있다.

이한테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근본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흥행하는 IPO 공모주의 경우 1억원을 넣어도 몇 주 못받는 상황”이라며 “IT, 벤처, 혁신 성장 등 정부의 정책적 배경도 K-OTC 시장의 흥행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플랫폼 구축 나서는 증권사

증권사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안에서 K-OTC 거래가 가능하다. 최근 키움증권은 K-OTC 거래 수수료를 기존 0.2%에서 0.14%로 인하했다. 수수료를 인하할 기법해 커피를 증정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K-OTC 거래가 증가해 MS(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와 거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TC 외에도 ▲증권플러스 비상장 ▲비상장레이더 ▲비마이유니콘 ▲

네고스탁 ▲판교거래소 등 민간플랫폼에서 장외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작년 11월, 삼성증권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함께 출시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누적 가입자 수는 18만 명, 누적 거래 건수는 2만건에 달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비상장레이더’, 코스콤은 ‘비마이 유니콘’,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네고스탁’ 등 장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피엑스(PSX)라는 스타트업 증권 플랫폼 운영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판교거래소’의 정식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 종목은 상장 종목에 비해 정보가 적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이한테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장외주식의 경우 기업분석 보고서나 공시가 상장사에 비해 최소화돼 있다”며 “또한 주식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득·처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국내 최고 SAR 기술력... 국내외 메이저 업체 판로 확보

株라쿨라의 종목

MCU전문 팹리스 | 어보브반도체 |

스마트 가전시장 확대 수혜 기대
삼성·LG·필립스 등에 MCU 납품

무선이어폰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며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어보브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다. 전자파흡수율(SAR) 센서와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제품 개발·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어보브반도체에 직접적인 수혜가 향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어보브반도체는 블루투스 저전력 MCU 제품을 출시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확보했다”며 “차세대 미래 가전에 다

양한 부품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어보브반도체는 지난 2006년 설립된 MCU 전문 팹리스 업체로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이어폰 부품인 전자파흡수율(SAR) 센서와 터치 센서 등을 개발해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에 납품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오랜 시간 축적한 IoT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미래 가전에 다양한 부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선 최고의 SAR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어보브반도체의 SAR 센서는 지난해 ‘대한민국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대전 기술대상’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받았다.

SAR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SAR 사업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8% 늘어난 182억원을 기록했다. SAR 매출 비중은 2017년 12% 수준에서 상반기 기준

29%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 노트’, ‘갤럭시 버즈’ 시리즈, 화웨이의 ‘P’ 시리즈 등에 탑재되고 있어 SAR 사업부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스마트 가전 시장이 확대되며 어보브반도체의 MCU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MCU는 시간 예약, 알람 기능, 온도 조절 등 단순 작동부터 특수기능까지 제어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모든 전자 제품에 1개 이상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다. 어보브반도체는 IoT 전체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전제품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 확보로 국내 메이저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가전 업체까지 고객을 늘리는 중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대우에, 중국에선 메이디, 하이얼, 미국에선 필립스 등 글로벌 가전제품 업체에 가전용 MCU를 납품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어보브반도체는 MCU의 핵심인 비휘발성메모리(NVM) 자체 기술을 확보했다”며 “칩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기술을 개발해 경쟁 업체보다 회로 집적도가 높은 고성능 칩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중국향 매출 역시 빠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자회사로 두고 있는 중국 판매법인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5%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화웨이, 윈텍의 스마트폰에 MCU와 SAR 납품을 시작한 것이 실적에 반영됐다.

리서치알음은 어보브반도체의 적정 주가로 1만5800원을 제시했다. 어보브반도체는 전 거래일(4일) 코스닥시장에서 1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재보다 57%가량 상승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신한금융투자 해외 프로주식랩 출시 1대1 고객맞춤식 운용

신한금융투자가 7일 ‘신한 해외 프로주식랩’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 해외 프로주식랩’은 영업점 PB(운용역)가 고객의 자산을 일일받아 해외주식으로 운용하는 지점형 랩어카운트 서비스다. 현재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ETF로 거래 가능하며, 향후 중국 주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랩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의 전문가가 투자성향, 목적 등에 따라 개별 고객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 등의 1대1 맞춤식 운용을 한다. 특히 환전, 종목선정, 주문 등 고객이 직접 진행하는 복잡한 거래 절차 없이 영업점 PB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엄선한 주요 테마별 해외주식 모델 포트폴리오를 매월 제공해 고객 계좌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지원을 해준다.

특히 개인 고객의 경우 해외주식 매매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신한 해외 프로주식랩’ 랩 서비스 가입 고객은 원할 경우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 해외 프로주식랩’의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달러 가입 가능)이다. /박미경 기자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선착순 계약

롯데건설, 속초시 첫 공급
전용 59~128㎡, 568가구

롯데건설은 강원 속초시 동명동 436-1 일원에 공급하는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의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강원도 내 최고가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의 속초시 첫 공급이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세대의 동·호

수를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1차)은 500만원 정액제이며, 계약금(분양가의 10%) 완납 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는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 속초시에 공급되는 단지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 무주택 세대에게는 주택담보대출(LTV) 70%,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게는 60%가 적용된다. 또 지난 7월 28일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2주택까지 기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존 취득세율(1~3%)도 적용 받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7일 “이번 선착순 계약은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 일부가 나온 것”이라며 “청약통장

사용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계약에 나설 수 있고, 특히 기존주택 당첨여부 및 주택 소유여부, 재당첨 제한 없이 전국의 수요자들 또한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는 59~128㎡, 568가구 규모다. 단지는 동해바다와 청초호, 영랑호, 설악산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앞 도로보다 높은 단차를 활용해 저층부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에서도 조망을 누릴 수 있다.

건본주택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7-1 일원에 위치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